

‘새만금은 청소년의 신대륙!’

전북도, 제4회 국제 청소년 캠퍼리 개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열기 확산 스카우트관계자 초청 매력 자원 체험·답사 등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공식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아·태지역 1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리 보는 미니 잼버리대회를 열고 새만금 띄우기에 나섰다.

전북도는 9일부터 오일까지 3박4일간 부안 졸포만갯벌생태공원 일원에서 ‘제4회 새만금 국제 청소년 캠퍼리(이하 캠퍼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항복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치프 커미셔너, 김윤덕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권익현 부안군수, 해외 스카우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세계 청소년 축제의 장을 축하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이번 캠퍼리는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운영시스템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2017년 8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이후 전라북도에서 열린 잼버리 관련 첫 국제행사로, 세계 청소년들이 전라북도에 모여 우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다.

‘새만금은 청소년의 신대륙! 너의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퍼리는 야영활동, 스카우트 올림픽, 트래킹, 졸포생태공원 탐사, 잼버리 개최지 답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캠퍼리 참가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지에서 벗어나 전주, 군산, 순창, 고창, 부안 등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도내 5개 시·군 자원을 연계한 영외과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또 부대행사로 새만금 잼버리 홍보관, 전라북도 문화관광 홍보관 및 스카우트 용품 전시관을 운영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영사에서 “3박4일 동안 국내·외 청소년 및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매력을 마음껏 만끽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2023 새만금 잼버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초청자 세드리 트레이너 야태 프로그램 분과위원장은 “모든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산과 갯벌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주변 자연환경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에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캠퍼리 기간 중 2일간(10~11일)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새만금 잼버리 가족캠프’를 개최해 일반 도민 300여명에게 국제 캠프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김진성 기자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통문 여는 군인들
지난 9일 경기 파주시 DMZ 앞에서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탐방객들의 출입을 위해 군인들이 통문을 열고 있다.

도·진안군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주요시설 점검·홍보물 배포 등

전북도는 9일 진안군과 함께 운일안반 일암 노적교 인근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북도, 진안군, 진안 119안전센터, 안전보안관,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총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는 물놀이 지역 주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등 시설물 관리상태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물놀이 안전 홍보물을 배포했다.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 조치토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들의 지속적인 예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방문객들의 수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말에도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진행되는 8월 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공무원, 안전관리요원 등

으로 구성된 전담관리대 운영을 통해 물놀이 안전취약지역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에 비해 하천, 강, 계곡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더 취약하다”며 “안전요원 배치 등 법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끊임없는 순찰과 계도활동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계곡, 하천 등 물놀이 대상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을 10개 시군에 104개소, 위험구역은 8개 시군에 32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김진성 기자

행안부, 전국 지자체 민원서비스 실태 조사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실태 조사를 나선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민원처리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지난 9일 당국에 따르면 행안부는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의뢰해 오는 9월 2일부터 75일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정민원 만족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 이번 조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간 지자체에서 접수·처리한 인·허가 등 등록, 확인·증명 등 법정민원의 민원인들로, 지자체로부터 민원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다.

민원 안내의 충실도와 직원의 친절

도·전문성, 민원 처리의 신속·공정성, 시설 이용의 편의성, 전반적 만족도 및 불만사항 등 크게 5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진적인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지역 혁신성장 위해 창업유관기관들 한자리에

도·전북중기청 등 25개 기관 참여... 혁신창업협의회 개최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최근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전북센터가 주관하는 ‘2019 혁신창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청, 전북중기청, 전북대·전주대 창업지원단 등 총 25개 창업 관계기관이 참석한 협의회는 혁신창업을 통한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2019 창업·벤처주간 개최 ▲전북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 활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창업 불확산과 스타트업 성과창출을 위한 2019 창업·벤처주간에 대해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했다.

협업·벤처주간 메인행사인 ‘2019 전북창업대전(가칭)’을 국내·외 창업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도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로 기획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창업대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업은행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가 참여하는 ‘KDB네스트리운드’와 ‘전북투자벤처포럼’ 등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도내 스타트업의 마케팅 강화와 관광망 확대를 위한 ‘농식품 품평회’와 ‘창업마케팅 활성화 포럼’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KT&G 상상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와 함께 ‘유망스타트업 전시관’, ‘전북창업 종합상담관’을 운영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승강기 사고 실전 대응 합동훈련 실시

전북도는 승강기 사고 고장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제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6월 14일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실시한 훈련을 시작으로 4개 시·군 9개 지역에서 실시했으며 지역주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진행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승강기가 정전 또는 고장으로 정지되어 이용객이 엘리베이터 내 갇히는 상황을 연출해 이용객들이 비상통화 버튼을 누르고 승강

기 고유번호를 알리면 119 구조대와 승강기 전문기술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사고 발생에서부터 상황인지 및 접수, 출동, 구조 활동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처럼 펼쳤다.

또한 참석자 모두가 훈련상황을 참관하도록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실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이 끝나면 지역주민, 관리주체,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이용방법, 승강기 사고사례 및 사고·고장 대응요령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병행했다.

특히 지난달 25~26일 전주시 6개 지역에서 실시한 승강기 사고 실전 대응 합동훈련은 전국 시범훈련으로 최초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통하여 승강기 사고 고장 시 신속한 구조는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렸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실시한 합동훈련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가 정착되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처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환영 스피치, 긴장해소, 면접, 웃음치료 모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주, 야반으로 학습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지적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용병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MBC TV, JTV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6스피치커뮤니케이션”, “너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19학년도 2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 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 스피치 최고지도사·스피치(긴장해소)주	전주, 원주, 김제, 진안, 무주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 스피치 최고지도사·스피치(긴장해소)주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기초+고급)이강	정읍, 고창
전북대 익산캠퍼스(평생)	스피치 기법&긴장해소주	익산, 김제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 기법과 리더십(이), 스피치 최고지도사(이)	남원, 순창, 장수, 구례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이), 스피치(긴장해소)주, 최고지도사(이) 웃음치료(이)	전주, 원주, 진안,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고급력 스피치기법(이), 스피치 긴장해소(이)	전주, 임실, 원주
한국 스피치, 면접 아카데미	주말반, 개인지도, 면접이론, 실기과정(취업)	전북, 전남, 충남지역

상담전화: 063-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1차 마감: 8월 21일까지입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